

테마칼럼

공간과 생활

문화의 향기

디자인 세상

과학과 경영

시나리오로 미래를 관측하라



유정식

대다수의 경영자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할수록 정교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려고 한다. 확실성을 보장 받으려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세계경제에 파장을 일으키고 유가와 원자재값이 크게 요동치는 등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날로 커져감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다가올 미래에 막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대다수의 경영자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할수록 정교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려고 한다. 확실성을 보장 받으려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눈의 특성 때문이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보고자 하는 대상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는 간접 관측법을 쓰면 눈의 가장자리 부분을 통해 그 별의 색깔과 형태를 감지할 수 있을음을 알아냈다. 대상이 희미할수록 초점을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야 비로소 볼 수 있었다.

불확실하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미래를 보다 잘 감지하려면, 과거의 천문학자들이 일부러 물체를 똑바로 보지 않는 간접 관측법을 사용했듯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가능성들을 탐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지자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라

광주의 실업률이 3개월 연속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광주·전남지역 실업률이 집계된 7월 광주의 실업률은 4.5%로 전국 평균 3.1%를 크게 웃돌았다. 고졸가에다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이 걱정이다.

'반쪽' 산부인과 전남, 인구 늘릴 수 있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상반기 분반 실적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 산부인과 병·의원 70%에 달한다고 한다. 산부인과 환자를 받지 않는 '반쪽' 산부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65개 산부인과 병·의원 중 36곳(48.3%), 전남은 58곳 중 28곳(55.4%)이 단 1건의 분반 실적도 없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우영종. 여름철 불청객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모기는 숙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전염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일본 뇌염모기 경보. 둘째, 모기는 후각이 매우 예민하므로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몸을 깨끗이 씻어 냄새를 없애고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해야 한다.

가장 위험한 3대 직종 '농사'... 재해보험법 절실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업무상 재해를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농민들은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재해보험법이 없기 때문에 농부별같은 장기적 집행을 얻어오 아무런 의료혜택이나 보상을 받지 못한다.

기고 문병민. "흠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뱃님 어찌하리..." 위당 장백의 선생은 광복절의 노래를 통해 광복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다.

광복 제63주년을 맞아. 기, 우리는 병엄한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권을 빼앗겨 더할 수 없는 시련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국권회복을 위해 독립운동이 활발히 일어났고, 이러한 애국선열들의 치열한 독립운동은 마침내 자주독립의 감격을 안겨주었다.

한우 흉수 출하 소값 폭락 부추겨

미곡산 최고기 수입 여파로 인해 한우 농가들이 소값이 떨어질까 불안한 나머지 흉수 출하 하면서 한우값이 폭락하고 있다. 농민들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의 사례로 볼 때 흉수 출하는 자제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한우는 일정기간 조정을 거쳐 다시 예전의 가격을 회복할 것으로 본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善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가)간